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매월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에 도전합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가정이나 학교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활동의 일차적인 수단은 말(語)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말에 대해 최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적 잣대를 들이댔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경어를 쓰기로 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차곡차곡 시작하자는 이 취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될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말에 부대끼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짚어볼 일이다. 〈편집자 주〉

거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보(報)를 무서워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와서 도장(刀杖)이 몸에 들어 온다. 말을 하게 되면 선하게 하여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하라.

〈법구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설(善說)'이라는 이유는 첫째 그 말이 청정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며 둘째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경〉

사람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사나운 불꽃은 세상의 재물을 태우되 나쁜갈의 불꽃은 일곱가지 성스러운 재물을 태우는 까닭이다. 이같이 온갖 중생의 재앙은 다 입에서 나오는 터이므로 입이야말로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니라. 〈보은경〉

소매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소가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나니 이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지도자가 법답지 못하면 아랫사람들도 모두 법답지 못하게 된다.

〈중일아함경〉

소위 해치는 말이나 거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으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는 말, 저속하고 나쁜 말, 용렬하고 천한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리고 늘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말,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 멋지고 도리에 맞는 말을 하며 항상 시의적절한 말, 분명한 말, 진실한 말, 정법을 설하는 말, 때에 따라 헤아려 결정한 말 들을 즐겨 생각해야 한다. 보살은 웃을 때라도 늘 자세히 생각하거니 하물며 굳이 어지러운 말을 함부로 하겠는가.

〈화엄경〉

관련기사 2면

고속철 경주역사 '건교부안' 확정적 15면
한국불교 동남아 문맹퇴치 앞장 14면
16일 새 찬불동요 30곡 발표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팔만대장경 석굴암 세계유산 등재 1년

훼손 무방비 '보존절실'

해인사, 심포지엄등 '기념주간' 행사 마련

성보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32)과 판전(국보52호), 불국사(국보20호) 석굴암(국보27호)이 종묘(사적125호)와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6일로 1주년이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한 문화재로 팔만대장경과 석굴암 보존에 세계인이 나서게 된 것이다. 한국불교 1천여년 유산이 세계유산에 지정된 그자체로 불교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자긍심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지정에 곧이어 발생한 해인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팔만대장경은 현재 훼손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석굴암 외각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본존불에까지 금이 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계유산지정과 맞물려 문화유산 관리에 문제점이 불출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실시와 개발논리에 밀려있던 문화재와 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불교계를 비롯한 환경단 및 시민단체들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문화재에 대한 홍보보다는 제대로 보존하는 감시에 뒤쫓기 바빴다는 평이다.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갖는 등 문화유산과 환경보존을 위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환경문제를 두고 불과 3개월만에 1백만의 국민이 서명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는 일도 있었다. 아직 해인골프장 건설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놓은 시점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을 맞아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동운스님)와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열)는 7일 부터 오는 15일까지 1주일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법회 등 대규모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도표 참조〉

불교계는 이 주간을 계기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사찰환경보존에 인식과 각성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팔만대장경 세계유산등재 기념 행사

행사	일시 · 장소	내용
ICOMOS 사무총장 초청 강연 · 기자회견	8일 오전8시 9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팔만대장경 및 골프장 예정지 답사 '위기에 처한 팔만대장경' 주제 강연, 기자회견
세계유산 지정 1주년 기념법회	10일 오후1시 해인사	기념법회, 팔만대장경 정대 불사
팔만대장경 관각및 인경(印經) 재연행사	7~15일 해인사 구광루	대장경 연구논문가와 대장경 연구소의 고증으로 판각 및 인경 재연, 일반인이 직접 판각과 인경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 · 생태기행	14~15일 가야산 일대	[illegible]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숍	13~14일 해인사 보경당	[illegible]
가야산 야생동물 겨울철 먹이주기	11일 12시 가야산일대	해인사 대중스님과 해인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2백여명 참석.

문체부, 해외집중 소개

"불국사 · 석굴암등 한국문화 상징물로"

불국사-석굴암이 한복, 한글, 김치-불고기, 태권도 등과 함께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한국문화 CI(Corporate Identity 통합이미지)'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CI는 연차적으로 한두개씩 디자인과 로고작업을 거쳐 해외에 집중 소개된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결성

실태조사 · 분쟁해결 … 13~14일 '환경워크숍'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지난 11월 22일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주지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결성 13일 이전에 출범한다.

총무원은 오는 13~14일 양일간 해인사에서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숍'개최에 앞서 사찰환경보존위를 가동시킨다는 계획아래 문화환경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찰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환경, 종교(수행)환경보존을 위해 결성되는 사찰환경보존위는 산하에 50명이내의 자문,전문,실무위원을 두어 전국사찰의 환경실태조사는 물론 사찰환경분쟁을 조정하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세우는 등의 사업을 펼친다.

한편 사찰환경보존 위원으로 △환경전문:박윤흔(전 환경처장관)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언론계: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학계:황수영(학술원 회원) △시민단체: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조계:양영태(조계종 고문변호사) △스님:여연(조계종 종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박준수(판사) 안동일(변호사) 황규선(국회의원) 추미애(국회의원) 신영훈(사찰건축)씨와 전문위원에 연기영(동대 교수) 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씨 등을 교섭중이다.

'전통사찰' 수행목적 농지취득 가능

정각회, 불교관계법 개정 의원 발의

정각회(회장 서석재)는 지난 5일 불교관계법 개정을위한 간담회를 갖고 "전통사찰도 불교고유의 수행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키로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체부실무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각회는 불교계가 요구하고있는 '농지의 사찰명의등록'에 대해 "무소유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의 특성을 고려해 신도가 시주하거나 토지교환, 수용당한 토지를 사찰명의로 할수 있도록하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각회는 "헌법에 농지소유는 경작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법률검토와 자구수정이 요구된다"며 빠른시일내에 최종안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정각회는 또한 조계종과 문체부가 합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들 법안을 농지법개정안과 함께 이달중으로 의원발의하기로 했다. 의원발의하기로 한 전사법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보호구역확정 △전사법에 종단대표자규정 삽입 △전통사찰의 건축법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정각회는 지난 11월 20일 국민회의 연등회가 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정각회차원에서 다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을 찾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새장을 함께 열 새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 종	인 원	응시 자격
경력기자	0명	· 불교신자
수습기자	0명	· 4년제 대학졸업 · 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 면접
단, 경력기자는 1차와 면접에 한함
▲제출서류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자기 소개서(원고지 5매 분량)
▲접수 및 문의 : 1996년 12월 24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총무국 전화(02)737-8881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28일(토) 오후2시 본사 사옥
· 인터넷 부다피아 검색 가능 (http://www.buddhapia.co.kr)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 유효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 · 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김의정씨

△만업 보림사스님(함양): 용인군 원삼중 원삼초교(2구좌)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경북 달성군내 중 · 고교(10구좌) △임효정(경불련 협력위원장): 종립학교(1구좌)

(12월 5일 현재 총 543구좌 접수)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 (1구좌 10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最大의 민영제철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最大의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평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철강의 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最初의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最尖端 기술 국내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일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렉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철강을 만듭니다.

最高의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 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